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가 제정된지 한달 만에 폐지됐다. "중복 표적감사"라며 단체행동에 나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시의회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의를 요구한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4명,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에 실패했다.

집행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

광주시의회, 재의요구안 16일 전격 부결 갈지자 행보 시의회 책임론 불가피할 듯

즉 재의결된다. 그러나 이날 82%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폐지되게 됐다.

민선 6기 들어 조례안 재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9일 상임위, 의장단,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상정한 뒤 일반 시민과 복지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 등을 거쳐 이날 표결을 실시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

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

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찬반 의견도 뜨거웠다. 사회복지시설 측은 "과중하고 중복일 뿐 아니라 시 감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표적감사로 비민주적인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찬성 단체들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는 시의회가 상임위를 거쳐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 책임론과 집단민원을 의식한 집행부의 '눈치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은홍 기자

재개발단지 주택 침입 금품 훔친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재개발단지 내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3시에 광주 북구 임동 재개발단지의 한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450만원 상당)과 현금 5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주인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사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대문도 열린 집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4월23일 출소한 A씨가 동료 재소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목포서 흉기 찔린 50대 치료 중 숨져

목포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40분께 흉기에 찔려 지역 한 병원으로 옮겨진 A(56·여)씨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음독한 남편 B(59)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직접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셀프 세차장·주유소 동전교환기 턴 3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셀프 세차장과 주유소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만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주유소에서 공구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50만원을 가져가는 등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광주와 나주지역 세차장·주유소 20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397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세차장과 주유소 교환기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말 새벽시간대 화물차 공구함에서 훔친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고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공원 화장실·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노숙해왔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1년 간 복역하고 출소했으며, 출소한 달 만에 재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3주 간 잠복 근무 끝에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치매노인 남편 외출한 사이 화재로 사망

가족이 외출한 사이 홀로 집을 지키던 치매 노인이 실수로 일으킨 화재로 숨졌다.

16일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23분께 서울 관악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홀로 있던 8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안 물건 일부가 불에 타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A씨가 평소 치매 증상이 있어 이날 남편 B씨는 문을 잠근 채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하려던 A씨가 불을 내 잠깐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B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은 꺼진 뒤였다. B씨는 상황을 보고 따로 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가스레인지 위에 전기 밥솥이 올려져 있었던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싱크대 선반이 조금 타면서 (불은) 스스로 꺼졌는데 산소 부족으로 (A씨가)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남편 B씨가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벌어진 화재로 조사됐다"며 "조사 감식반을 통해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세월호 희생자영결·추도식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

“세월호는 시대의 아픔” 잊지않기 위한 팽목항 추모 발걸음

"2014년 4월16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4년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세월호는 시대의 아픔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통곡의 향구 진도군 인회면 팽목항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4년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은 듯 추모객은 노란리본을 팽목항 방파제에 묶었으며 '노란리본 등대'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월호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4년 전 그날 이곳을 희생자 가족들의 기다림의 향구였다.

가족들은 '진원구조'라는 발표를 믿고 피붙이에게 입힐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경기도 안산 인천에서 수백km 떨어진 팽목항으로 모였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가족들은 "주검이라도 안고 가야겠다"는 절박함으로 팽목항에서 버텼다.

4주기가 된 이날 팽목항에 머물렀던 가족들은 돌아갔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방파제에 묶인 노란리본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머물던 자리에 세워진 노란리본 조형물, 하늘우체국 등이 추모객을 맞이했다.

희생자 304명의 영정사진이 있는 팽목분향소에는 각종 음식과 조형물로 채워져 그들의 넋을 기렸다.

이곳을 찾은 추모객들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며 위로의 마음을 글로 전달했

다.

휴가를 내고 팽목항을 찾은 추모객은 "어느 직장인의 작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조선대학교 한 학생은 "세월호는 시대의 아픔입니다"라며 "2014년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호소했다.

한 추모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 밖에 없어 미안합니다"라며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다짐의 글을 전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확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확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